

‘등불’ 꺼져도 빛은 밝아...

독자 특별기 2

명현성(본명 김용숙) 불자

아름다운 인연은 아름다운 동행이 되지만 때가 되면 생과 사의 길림길에서 이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자들은 알고 있다. 이 별이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행의 현장에서 함께 하던 도반과의 이별, 이 역시 한 때의 슬픔과 그리움일지라도 결국 아름다운 재회를 위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본지(本紙)의 오랜 독자 명현성(본명 김용숙) 불자가 도반 자은만 보살님의 49재(4월 5일)를 맞아 먼저 간 빛을 그리며 편지를 보내 왔다. 자신의 수행과 이웃의 행복 그리고 만중생의 성불을 위해 참 불자의 삶을 살다 간 한 불자의 생활과 그를 그리는 도반의 마음이 절절하지만 하다. (편집자 주)



병마 중에도 보살행 귀감 보여준 자은만 보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도반으로 만날 수 있길...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반 자은만 보살님은 서울 송파구 석촌 호숫가에 위치한 불광사 불광유치원의 초대 원장님이었습니다. 4월 5일 이면 보살님이 68세의 나이로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신 지 49일이 됩니다. 저는 자은만 보살님이 23년 동안 병마와 씨름하는 고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저에게 '현대 불교'의 구독을 권유하여 좋은 인연을 맺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현대 불교'는 자은만 보살님과 더불어 영원한 저의 도반이 되었고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는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도반 자은만 보살님의 실체는 온데간데없고, 이 마음 가득한

선원 대행 큰스님의 인연으로 쌓은 정진 수행 공덕은 보살님을 더욱더 빛나게 밝혀주었습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실장인 승원 스님께서 보살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스님의 포교당 공양실 처소에 기거시키며 응징정진 기도로 회생시켜주셨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경찰병원 해광 스님께서도 많은 노력과 기도로 이끌어 주셨지요.
무엇보다 3년 전 부군인신 김태문 거사님께서 급성병마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도 보살님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일체를 맡기고 기도 정진하시어 거사님을 정상인으로 우뚝 세워 드렸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도반들은 얼마나 큰 환희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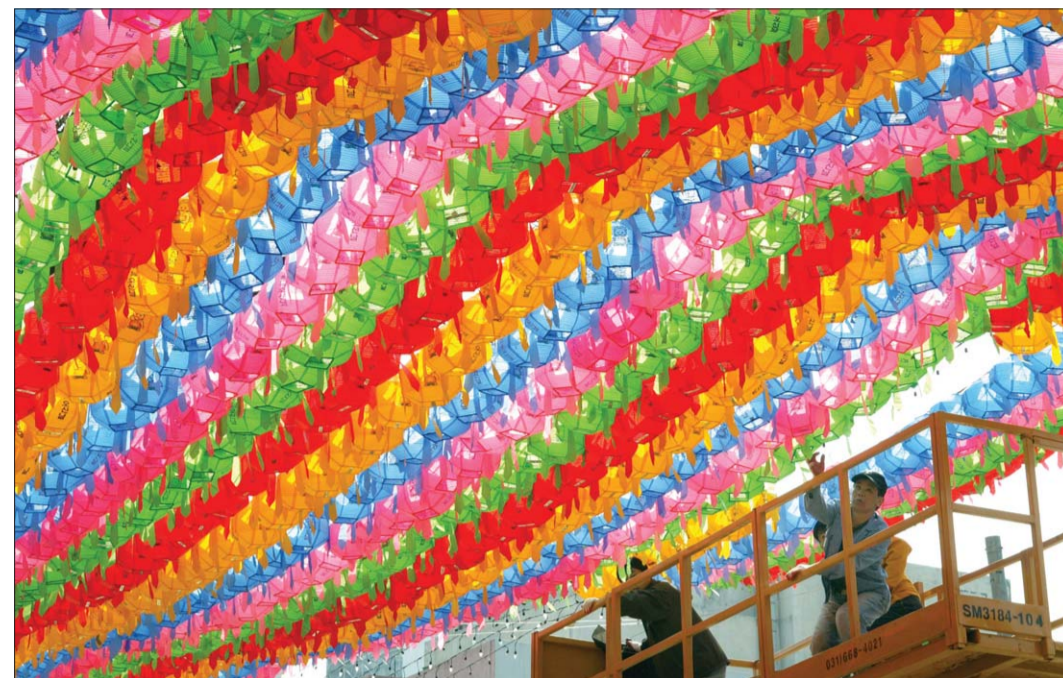
에서는 1%의 가능성을 말할 때 보살님은 '우리 부처님께서 100%확신을 주셨다'고 장담하며 매일매일 기도에 몰입하고 당신이 서 있는 곳, 앉아 있는 곳, 분별없이 다 법당이라고 끊임없는 기도를 눈물겹도록 하였습니다. 온 가족에게 행복과 인력이 가득 잘 즈음 보살님께서 병석에 누우셨고 가족과 도반과 모든 인연에게 슬픔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보살님은 생전에도 남달리 보살행을 실천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루에 2-3시간씩 대치동에서 안양을 오가며 한마을선원의 하안거 동안거를 성만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자은만 보살님 부부는 젊은 나이에 시신을 의료연구용으로 기증하며 무상의 도리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보살행 하나하나가 남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었는지 도반으로서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보살님이 곁에 있을 때는 존경스럽기만 했는데 이제 떠나신 공간에는 절절한 그리움만 가득합니다. 광덕 큰스님께서 생전에 '불광인은 영원한 광덕의 등불이며 호법의 선두자'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광명을 안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은만 보살님!
당신을 그리며 보살님께서 기도생활의 철칙인 <금강경>수지 독송, 사경,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살님과 저는 생일날도 똑같이 1966년 11월 12일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린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의 실마리를 이제 저 혼자 감당하고 있자니 시시각각 그리움에 눈이 아려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살님께서 평평 우시며 전화로 내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사경을 못하고 있다면서 대성통곡을 하신 기억이 가슴 저미도록 아픕니다. 보살님 못 다한 <금강경> 사경을 이 도반이 완성하여 보살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은만 보살님!
이제는 고통 없는 서방정토 아미타국 가서 환희와 복락 영원토록 누리시소서. 다음 생에도 도반으로 만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응징 정진하는 바라미 행자로 거듭날 것이며, 보살님과 같이 보살도를 잘 닦아서 바르게 살 것을 보살님 영전에 맹세하겠습니다. 대불광의 영원한 등불이시어 빛으로 돌아오소서.
나무 마하반야미라미.

◀사건 오른쪽은 자은만·왼쪽은 명현성 불자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힙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4월 4일, 전국의 사찰에서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 색색의 연등이 내걸리기 시작했다. 등불 하나하나에 부처님 오신 뜻을 밝히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부처님 세상'이 되기를 서원하는 마음이 함께 담겼다.

올 연등축제 동대문축구장서

서울시, 봉축일 이후로 철거 연기 결정

동국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올해 연등축제가 5월 4일 동대문축구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위원장 지만)는 4월 3일 "부처님오신날 어울림마당(연등법회)과 제등행렬 출발장소를 동대문축구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봉축위원회는 지난 1월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을 4월 27일과 5월 4일 분리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협조로 동대문축구

장의 철거가 연기됨에 따라 두 행사를 같은 날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4월 27일 서울 잠실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어울림마당 행사는 5월 4일 동대문축구장에서 출발하는 제등행렬에 앞서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어울림마당을 봉행했던 동대문야구장은 지난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축구장도 4월 경 철거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연등축제의 세계적인 위상과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축구장 철거를 부처님오신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장소 및 일정 변경으로 교통체증과 참가 인원 감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서울시의 협조로 무사히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며 "변경된 일정에 맞춰 어울림마당과 제등행렬을 국민적 축제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최근 연등축제 대중음악 <연등축제의 노래 3> 음반과 악보집을 선보였다. 율동곡에 맞춘 율동 인무는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홈페이지(www.burec.org)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다. (02)2011-1745 여수령 기자

히허당의 세상만사

■ 홀로선 자

아름디워라 홀로선 자
이세상 어떤 기쁨도
고요히 스스로
홀로 있는 기쁨만 못하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
가사·영정

☎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97-5400 팩 스 031)397-5409
유대폰 010-7504-4521 (경원권 변호사)
017-535-0685 (271면 변호사)
010-4488-3740 (강제선 변호사)

전국꽃축제 안내 ▶ 18면

참가업체모집

2008한국불교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참가분야
종단, 사찰, 학교홍보관, 불교건축
불교용품, 전통공예품, 차·전통식품
다기·다구, 불교장례문화 등

참가기간
2008년 4월 1일부터 선착순

참가비 및 제공내역 (부가세 별도)

기본부스	독립부스
1,700,000원 / 1부스(9㎡)	1,500,000원 / 1부스(9㎡)
상호간판 / 시스템 벽면 / 조명 책상, 의자 각 1개	전시면적만 제공 (부스장치공사 참가사 부담)

※ 식품, 차, 의류관련 부스는 특별할인(문의요함)



불교산업과 불교문화의 역사적 만남

Korean Buddhism Expo 2008

2008 한국불교박람회

2008. 9. 5(금) ▶ 9. 8(월)
KINTEX(한국국제전시장)

주 회 - 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 2008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02)706-3493
홈페이지 - www.bexpo.org